(1945. 12. 20)(1946. 6. 18)(土曜日) 朝鮮日報 THE CHOSUN ILBO 檀紀四千二百七十九年十一月三十日 (第一號)

朝鮮日報

社說 時急을要하는統一戰線 一

우리의 獨立運動은 元來부터 戰線의 統一으로써 强力하는 全民族的인 것이야 한다는 것은 다시 論할 餘地가 없는 바이어니와 昨年이맘때 重慶要人들이 入國하든 날부터 所謂左右合作問題가 全民族의 注視裡에 始作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努力은 托治問題로 因하여 問題가 問題답게 取扱되여 보지 못한 채 極히 短時日에 完全決裂狀態에 빠지고 마럿다。 以來至極히 무기운 空氣가 돌 때에서 左右가 事事件件에 對立과 感情挑發로써 酬應하는 동안 民生은 날로 難境에 빠지고 一便左翼的政治人의 大量檢擧가 있은 다음에 이르러 金博士와 呂運亨氏를 中心으로 左右合作運動이 展開되었으나 그 熱烈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民衆앞에 보여줄 만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二

우리는 性急한 合作과 無理로는 不誠實한 統一은 願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獨立前程에 가로 놓인 客觀的인 國際情勢로나 또는 民生問題 建設의 時急한 實로 一刻의 餘裕를 不許하는 바이어서 萬一 우리의 建國이 以上 遲延시키지 아니치 못한다면 우리의 建設은 적어도 十數年乃至半世紀의 遲延을 招來할지모를 것이며 經濟的獨立 우리의 願不願과 相對方의 그것의 有無를 莫論하고 하나의 商品市場으로 되어져 永遠히 負債國으로 또는 奴隷的國家로 될 念慮가 없다고 누가 敢히 保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危險은 建國이 느저지면 느저질수록 그 可能性이 急速度로 增加되리라는 것은 至極히 明瞭한 것이며 우리는 時急히 國家를 가져야하겠다 獨立은 찻는 것이오 建國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時急히 國家를 가지려면 먼저 우리의 獨立戰線의 統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運動의 初步的知識이오 가장 平凡한 眞理이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深思熟考한 남어게의 究極에 있어서도 如前히 이것만이 우리의 主體性을 세우는 길이오 而

三

이제 잠간 國內의 政界를 살피면 左右翼各各陣營內에 있어 그 整備强化가 要하는 時機는 一이 要緊하며 獨立戰線의 統一에 이르러서는 없을 것이다。 또 이나 그러나 大體로 各各 자기가 하는 것을 民族力量의 總集中運動은 中間的努力이 必要한 것이다。 民衆이 自發的으로 各政黨의 態度와 國家를 가지는 必要한 事實이다 左右와 南北의 統一運動은 各政黨에 對하여 그러한 積極性을 期待하며 우리의 建國戰線에 있어 自發的인 民族의 力量의 集中을 苦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再開하면서도 우리는 全民族의 熱意와 革命家的良心으로써 直接南北左右政黨이 統一하여 獨立하여 三千萬民衆의 總力量을 集中發揮시키는 努力과 誠意를 가져주기 다시 한번 바라는 바이다。

國民大會서 蔣主席演說

孫逸仙以後의責任負擔햇든 政治生活은終結!

【南京廿九日發AP合同】蔣主席은 昨廿八日 國民大會에 臨席하야 中國의 代議制自治統治를 主張限으로 하는 中國憲法草案을 提示하면서 廿年前革命當時의 機性을 感慨無量한 態度로 回顧하는 同時에 政治生活의 終結을 意味하는 意嚮을 表示、約廿分동안 다음과 같이 演說하였다 (사진은 蔣主席)

萬若大統領이 自己敎育을 받어야할 것이며 本週에는 全體主義의 危險이 發生할 念慮가 있는 것이다 그러고 中國人民大衆은 過去에 있어서 自治統治의 經驗을 갖지 못하였든 만치 統治의 學問을 明치않다 한다。 蔣主席의 演說은 各句節마다 拍手로 歡迎을 받었으며 蔣主席의 이 言明이 蔣主席의 廣範圍한 權限抛棄를 意味하는 것인지는 아직 分明치 않다 한다。

現在國民大會에는 中共側의 參加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나는 나의 政治生活이 此際에 終結한 것으로 看做하는 바이다 이미 六十歲를 마지한 나는 孫逸仙博士의 逝去以來 約廿年間中國政府의 責任을 負擔하여 왔었는데 現在에 이르러 本國民大會가 責任을 引繼할 수 있음으로 나는 이以上 더 政治的慾望은 갖이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本憲法草案에는 最高責任者에게 廣範圍한 權限을 保有케 하는 太統領制政府를 規定하였는데 萬若 이 新憲法이 通過된다면 이것은 모든 方法에 依해서 中國人民의 權利를 能히 保有할 수 있을 것이다。

N·U 政委 軍縮과 原子彈 監察管理案

蘇聯側突然同意表明

【레이크석세스廿九日發AP合同】廿八日UN政治委員會에서 蘇聯代表 「모로토푸」氏는 軍縮及原子管理에 關한 國際監察及管理에 對하여 突然同意를 表示하였다 이로 因하야 滿場의 注目을 끌었는데 氏는 다음과 같이 發言하였다

世界軍縮과 原子力武器의 軍事的使用禁止를 爲하야 UN安保內에 如左한 特別監察機構가 樹立되기를 要望

(一) 世界軍縮에 關한 決定을 實施할 管理委員會

(二) 原子動力의 軍事的使用禁止에 關한 決定을 實施할 管理委員會

그리고 이 管理機構는 否認權을 行使할 수 있는 UN安保傘下에서 ... 如何한 監察管理機構라 할지라도 否認權의 影響을 받어서는 안된다 何如間 나는 蘇聯의 提案을 全幅的으로 歡迎하는 바이다 그리고 各國이 事實에 있어서 軍縮을 實施하고 있는 點을 保證할 方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對하야 美代表 「코나리」氏는 如左히 發言하였다

對日賠償會議 聯合各國招請

十二月初華府에서開催

【華盛頓廿九日發AP合同】美「포레-」大統領賠償特使「포레-」氏는 對日賠償問題에 關하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一) 美國은 聯合各國에 對하여 十二月初旬 華府에서 開催될 對日賠償會議에 參席하도록 要請하고 있다

(二) 蘇聯과 其他關係國은 同會議參席을 躊躇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蘇聯은 滿洲로부터 撤出한 工業施設을 戰利品으로 認定하고 있는 反面美側은 이에 反對하고 있으며 其他關係國은 ...

一、現在賠償物資로서 決定한 日本資產의 二十%를 關係要求國家에 卽時分配할 것

(二) 그後殘餘의 八十%의 分配方法을 考慮할 것

解決되어야 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드리치」紙報道에 依하면 美政府는 「맥아더」司令官에게 對하야 如左한 指令을 傳達할 豫定이라고 한다 現在 極東委員會에 提示되여 있는 方法이 決定되면 이것을 再議할 것 한편日本으로부터의 賠償大部分을 獲得할 國家는 如左하다 中國、比國、濠洲、佛、印度、英、美

兵力報告案決定內容

【레이크석세스廿九日發INS合同】迂餘曲折을 經한 兵力報告問題에 關한 決定案은 廿八日UN政治委員會에서 美英側에 依한 廣範圍修正案이 卅四對七票로 可決되었는데 同決定案의 要旨는 如左하다

(一)UN「멤버-」各國은 當該國內外에 있는 兵力數及軍事基地(十

今番의四相會議에선 獨問題審議不能

佛代表延期希望

【巴里二十九日發UP合同】四大國外相會議는 佛蘭西代表의 以上의 佛蘭西에 있어서 十二月十五日前에 結局 그러나 佛蘭西代表는 獨問題審議에 關한 節大問題에 對하여 今次會議가 끝나기 前에 對獨問題審議는 不可能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佛蘭西는 今次의 四大國外相會議에서 「비도」首相이 不在함으로 佛蘭西代表는 其他經濟專門家가 如此한 準備的會議에 參與하는 것을 不願한다고 通告하였다 그러나 佛蘭西의 代表는 本格的으로 審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佛蘭西의 政治爲하야 消息通이 傳하는 바에 依하면 三大國으로부터 獨逸問題에 關한 具體的으로 審議하지 않을 것이라는 正式確言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今次의 四相會議가 開始된 後 經育으로 豫定이다 한편 四

二月十五日現在에 關하야 報告할 것 (二) 同報告는 UN事務總長에게 提示할 것이며 UN事務總長은 이를 發表할 것

▲反對投票國=蘇聯、「우크라이나」、白露、「유-고」、波蘭、「체코스로바키아」

▲棄權國=佛、瑞典、印度、土耳其

▲贊成國=其他代表國全部

政府軍아州進駐通牒

「이란」內亂에直面

【테헤란二十九日UP發朝通】「이란」首相은 萬一政府軍이 越境進駐하는 境遇에는 同政府는 「아제르바이잔」自治政府는 十二月七日 分離하야 獨立을 宣言한 「아제르바이잔」間의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란」中央政府로부터 「카스피안」兩人에게 對하야 威嚇하는 것이다 政府軍의 派遣을 監督하기 爲하야 「아제르바이잔」의 形勢는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一方中央政府軍部隊는 相當히 派遣되어있다 한편 二十八日 選擧를 監督하기 爲하야 「아제르바이잔」에 派遣되어 있다

아州軍防衛

【테헤란二十九日發AP合同】當地 「에테라트」紙報道에 依하면 그다시 獨立을 要求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自治政府는 今般實施될 選擧의 公正을 期하기 爲하야 「테헤란」으로부터 派遣되고 있는 政府軍의 進路에 要塞를 構築하고 있다 即 「아-」州의 「테헤란」에 連結하는 境界에 要塞를 構築하고 있는데 「아-」州軍은 「젠잔」北方六十五哩 地點에서 防禦를 强化하고 있다 한편 「아-」州國境에 集結하야 「가-잔」南方 「아-잔」市로부터 首相의 命令을 待機하고 있다 이에 對하야 「아잔」市로부터 廿七日 政中央社記者가

中央軍總攻擊態勢整備

【上海二十九日UP發朝通】中央軍은 最近中共軍을 包圍하고 있는 部隊는 南方으로부터 十軍東方으로부터 十三軍 北方으로부터 第四、第九軍 있으며 同城運命에 對하야 全面的攻勢를 取하고 있는데 中央軍은 二十二軍이 攻擊態勢를 取하고 있으며 黃河를 渡河하여 陝西省延安으로 向하는 中共軍은 山西省南部의 中共側의 宣傳에 依하면 延安集 ... 特히 滿洲에서 準備를 하고 있다 한다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中共軍은 ... 中央軍의 攻擊準備가 急速히 進步되고 있다 한다 國民黨政府의 行動이 明白히 不滿을 表示하는 政治措置에 依하야 追後로 取할 措置가 滿洲及陝西에서 攻擊準備를 하고 있으며 特히 滿洲로부터 情報에 依하면 中共軍은 아직 始作되지 않을 것이 事實이다 한다 그러나 同部隊는 萬一에 있어서는 總攻擊을 開始할 態勢를 取하고 있는 것이 明白하다 한다

滿鐵蘇從業員撤退는 蘇軍滿洲再進駐前提?

【上海二十九日發朝通】中國駐在蘇聯大使館에서는 中國政府와 軍人이 蘇聯人從業員에 對하야 打擊其他無理한 行爲를 犯하였다는 理由로 「中蘇」條約의 「東支及南滿洲鐵道의 合辦協定第三項」을 規定한 蘇聯의 優先的利權을 擁護할 것을 要求하는 旅順大連朝鮮에 이르는 陸上交通路의 中心連絡地인 奉天에서 總撤退케 할 것을 發表하였는데 當地의 中國消息通側에서는 以上의 蘇聯의 措置가 蘇聯側主張을 通하야 中蘇友好同盟條約第九條는 同鐵道의 保護에 關한 責任은 中國政府에 負課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側은 蘇聯이 卽時로 滿洲에 再進駐하는 口實을 만들기 爲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問題에 關하여 中國政府는 保障한 保護를 加하고 있다고 한다 이 軍事的으로 滿洲에 再進駐할 前提가 아닌가 하는 推測을 내리고 있다 同時에 中國消息通은 蘇聯이 滿洲에 再進駐하는 것은 中共側을 援助하는 것이라고 抗議를 提出할 것이다 蘇聯은 旅順大連을 占領하는 것이며 中國은 近來 蘇聯軍이 大連을 撤退하고 同港을 中共軍이 占領하는 事態가 생기지 않을까 憂慮하고 있는데 이러한 蘇聯의 滿洲政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滿洲政策은 變更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因하여 中美側의 關係는 더욱 有力하게 될 것이다

中共軍各地攻勢活潑

【北京廿九日發AP合同】各地區에 있어서의 國內亂戰勢現況은 大略如下하다

▲山西方面=中共軍은 四十五日間에 中山西省北部大同市에 對하야 再次包圍攻擊을 開始하고 있는데 中央軍側에서는 「今般中央軍의 攻擊兵力은 前般보다 强하다」고 말하고 있다

▲北京天津方面=中共軍은 北京天津間及津浦線沿線에 對한 攻勢를 繼續하고 있으며 現在廊坊南部地區를 攻擊中이다

▲滿洲方面=中共軍은 北京奉天間鐵道沿線特히 奉天南部地區에서 攻勢를 取하고 있으며 大連間特히 遼陽間에 大軍을 集結하고 있다

「따늅」河自由航行原則 蘇外相條件附로受諾

【紐育二十九日UP發朝通】「모로토푸」蘇聯外相은 二十八日夜 四相會議에서 「따늅」河 問題에 關한 條約原文中에 使用할 字句와 「모로토푸」外相은 이에 同意하였다 그러나 同外相은 前樞軸國及衛星國과의 媾和條約問題의 審議가 끝난 後에 記錄할 것을 拒絶하지 取扱할 것을 要請하였다 그리고 五前樞軸國과 其代身四大國은 個別的協定을 締結할 것을 要求하였다 「따늅」河의 航行은 自由이며 모든 國家의 市民船舶、貨物에 對하야 港口와 航行이 自由로 開放될 것이며 商業慣例의 範圍內에서 通商條件은 局限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모로토푸」外相의 提案原文은 다음과 같다 二十八日의 議程中에 包含되어 있었으나 最終的賠償問題는 以後 四相會議가 開催되어 結果가 當地 「번즈」國務長官이 同問題를 二十九日까지 延期할 것을 要求하였다

國民政府側의報道 蘇聯從業員의撤退는 疾病等個人事情에依한것

【南京二十九日UP發朝通】國民政府機關中央社는 長春鐵道에 對하여 中國當局의 要求는 蘇聯人從業員의 滯留를 要求하였다 中國側은 困難한 境遇에 있는 者는 歸國을 要求하여 中國側은 蘇聯人從業員의 一部가 臨時歸國하기 위한 許可를 하였다 中國側의 虐待로 因하여 蘇聯人이 奉天을 撤退한다는 蘇聯大使館의 聲明에 關하야 報道하였다 ... 中國側으로서는 生活難으로 蘇聯人의 輸送을 周旋한 일은 없다 蘇聯人은 疾病、生活難으로 撤退한 것이며 百餘名의 蘇聯從業員은 尙今奉天에서 繼續勤務中이다 奉天鐵道中央社記者가 主張하여

李博士歡送會

卅日仁政殿에서

韓國民族代表外交使節 李承晩博士渡美歡送會는 오는 卅日下午三時 昌德宮仁政殿에서 開催한다고 한다

交通確保없이 民生問題解決難

韓民黨宣傳部談

韓民黨宣傳部에서는 廿九日 다음과 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一、軍政廳司令部와 占領地內全朝鮮人에 對하야 朝鮮人의 建國은 軍政廳과 朝鮮人의 생각 하고 關係는 一、解放以後鐵道는 修理가 못되고 車輛은 破壞되고 機關區에 山積되어 있다는 것은 重大한 不安과 不便을 하야 交通과 治安이 莫甚하다 民族國民으로 待遇한다는 聲明에 對하여서는 敬意를 表한다 外國人에 있어서도 國民이나 外國에 가서 交通의 確保없이는 民生問題도 解決할 수 없으며 官民은 總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朝鮮人의 裁判은 占領軍 當然히 在日朝鮮人의 裁判所에서 再檢討할 것이다

朝鮮火災任員補選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에서는 二十九日臨時總會를 開催하고 任員을 補選하였는데 前任事務取締役 前軍政廳理財課長 朱與根諸氏가 當選就任하였다

中莫共府和放平送條報件道

【倫敦廿九日發INS合同】莫斯科放送에 依하면 中共代辯人은 和平交涉의 再開條件으로 (一) 蔣介石氏의 時中共戰鬪中止 (二) 聯合政府組織 (三) 「포리트-」은 政黨이 國民大會의 召集에 參加하는 同時에 中共側은 이러한 條件을 基礎로 하야서만 和平交涉을 再開할 用意가 있다고 말하였다

진나-氏倫敦訪問

【카라치二十九日發AP合同】印度 「무슬림」聯盟首領 「진나-」氏는 印度獨立問題를 相議하기 爲하야 倫敦訪問을 要請한 英國의 提案을 受諾하였다고 正式言明하였다

人事消息

▲林顯華氏(朝鮮金融組合聯合會理事)新任人事次來社

義務教育 全面實施 夜間中學校設置 教員의 待遇改善

三個重要項目

명년도 남조선의 민주주의 교육의 중점은 전부 다음 세 가지에 있다.

(가) 의무교육의 전면실시

(나) 야간중학교의 설치

(다) 교원의 대우개선

[illegible]

中等校二部制는 經費問題로 難色

서울시내 중등학교 [illegible]

[illegible]

日本서 「쌀」一千六百餘萬石 供出

【東京廿八日發共】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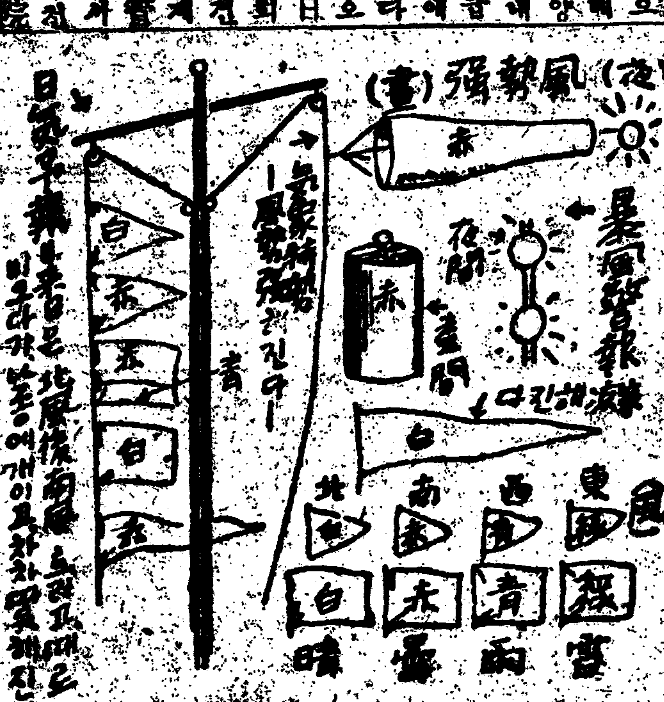
勞働週間 日程決定

「테로」撲滅에 仁川記者協會서 活動開始

【仁川二十九日發合同】 [illegible]

搜査局長異動

[illegible]



日氣豫報旗 또 揭揚한다

[illegible]

어린이들의 學校 [illegible]

特別新講奉行

螢雪舍映畫班派遣

脫獄防止에 監獄設備强化 ＝少年刑務所도 增設＝

[illegible]

人民解放報停刊

成業社等의 日人農地 新韓公社서 管理內定

日氣豫報

北西風이 불고 晴天이 繼續되겠다

最低 零下七度三分

立議開院日延期?

△官選議員名簿發表도 遲延▽

在中殘留同胞 12月歸國

【仁川二十九日發合同】 [illegible]

社勞黨李氏釋放

貯金保險加入者 原名是正을 要望

UN評 新學生大會 에서 三項目을 決議

蹴球協會役員改選

文化三團體에서 一萬五千圓 寄贈

臣休動靜

△信光女子技藝校開校式

△民族革命黨서 市黨結成委員會

△西北青年會結成式

靑年團籠球戰 (第四日)

鬪拳

體育

黑人對抗拳鬪戰

오늘의 라디오

【晝】 一一·三〇 日用品時勢 △一二·四五 家庭時間

【夜】 五·〇〇 時報 △五·三〇 어린이 時間 △六·〇〇 宗敎 △七·三〇 軍政廳時間 △八·〇〇 野談 △八·三〇 唱劇調

富士富士 大映 第5回公演 入氣의 樂園
同時上映 佛蘭西名喜劇映畫 사랑의 相續者
二十七日부터 首都劇場

肺患 全快者續出!! 最後死境者도 短期에 回生의 길있다 絕對責任根治
共信藥房

書籍都賣 地方同業者特別割引 文研社
서울市鍾路二街六六 振替京城三一七〇五

內科 小兒科 産婦人科 花柳病科 明石醫院

萬病根治 世界的大發明 不治萬病 責任根治 濟世萬病丸
濟世堂漢醫院 서울乙支路(黃金町)二街七二

男女外勤社員採用 朝鮮生命保險

朝鮮日報社 廣告部直通電話 本局② 三三八四番

實果園

香丹 Hyang dan
常備救急護身藥 大森工業株式會社

化粧品 大昌洋行

當選特選博工 國産電球界의 最高峰
金剛電球 株式會社
서울市中区忠武路二街 電本(2)1233·1480

書畫骨董 入札 即賣會
日時 丙戌十一月三十日 豫見 十二月一日 正午부터 即賣
場所 朝鮮古美術協會會館
市內同好者共同出品
主催 朝鮮古美術協會

社名變更廣告
舊社名 朝鮮郵船株式會社
新社名 大韓汽船公社
本社 서울市南大門路五街一番地
支社 釜山市 仁川市
社長 金龍周 理事 朴慶和 同 石鎭 同 韓介
一、航路 軍政廳命令航路(朝鮮沿岸 日本、南方)
一、運航船舶 十四隻 約四〇、〇〇〇屯

서울文具商社
◇高級事務用品·紙文房具 ◇印刷物一切·各種運動具 ◎各官廳、學校、會社用達